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홍 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chulhong1@naver.com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이란 상대적이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60~’70년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일 할 직장만 있어도 행복했다. 그러나 밥걱정이 사라진 ‘90년대에는 자유와 권리 신장이 중요했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다. 한편, 지역적으로 볼 때 서울 사람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하지만 세계와의 경제전쟁에서 이겨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반면에 농촌 주민들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가 잘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과거 개발연대와는 달리 오늘의 우리 국민들은 내일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은 성장피로증으로 쉬어가면서 일하고 싶어 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지방에 사는 서민들의 꿈은 소박하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적당히 품격 있는 직장, 고액 과외나 대학등록금에서 해방되는 자녀교육, 아플 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시내버스 타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끔씩 영화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선동적인 일부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고, 국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전시성 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동네까지 고속도로나 심지어는 KTX 건설을 약속하기도 하고, 고급두뇌가 있는 수도권에서나 가능한 R&D 센터나 신산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한 나라다.

